

헤드락·수업시간 성적발언 등 모두 성희롱

교육부 스텝미투 대응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구체적 사례 제시 대처·2차 피해 방지 대책도 담아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194쪽 분량의 매뉴얼에는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구체적 사례, 성관련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관련 지침이 담겼다.

매뉴얼은 우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언행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고 규정했다. 학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를 들어 교사와 학생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며 겨냥하기’, ‘헤드락 하기’, ‘치마 길이를 확인한다며 교복·체육복을 들추거나 잡아당기기’, ‘머리어

깨·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어깨나 팔 등을 안마하는 행위’ 등이 신체적 성희롱으로 명시됐다. 또 ‘수업시간에 암기·집중을 돕는다며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음담패설 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지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공포·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은 물론,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 성폭력과 ‘그루밍’ 범죄도 성폭력으로 포함했다.

매뉴얼은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상황뿐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가할 경우,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직원도 피해를 볼 경우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비롯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태극문양 퍼포먼스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오전 광주 서구청 앞 광장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손도장을 찍은 대형 태극기 앞에서 태극문양을 표현한 카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학부모 불모 사실상 총파업... 교육부 “긴급 돌봄 체제 가동”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월 초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지난 28일 선언했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학부모와 유치원생을 불모로 잡아 ‘총파업’을 선언한 것으로, 학부모 등 시민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일 종합대책을 수립,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한유총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비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다만, 실제 개학 연기 여부는 각 유치원이 자율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사립유치원 172곳 가운데 140곳, 전남 사립유치원 112곳 중 70여곳이 한유

총 소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연휴를 지나 오는 4일 개학연기라는 조강수술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오영란 한유총 전남지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중앙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판단은 개별 원장 몫이다.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기숙 광주지회장 역시 “개학연기 돌임 여부는 각 유치원 원장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선언과 관련해 1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벌이 골자다. 한유총은 사유재산과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친일 잔재’ 청산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육현장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선다. 지난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역사 교사 및 교사, 음악·미술 교사 등 전문교사 그룹으로 전담 조사반을 꾸리고, 3월부터 본격적인 친일잔재 조사에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도내 모든 학교 교가 현황을 조사해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가 파악될 경우 세 교가 작곡 및 편곡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일 행위자 관련 표지석, 흉상, 기념관, 사진 등이 있는지도 조사한

다. 훈화·치사, 두발·복장 검사 등 학교 문화에 녹아있는 일제 잔재도 고친다. 장석웅 교육감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교실 속에 남아 있는 일본말을 우리말로 바로잡는 일은 일제 잔존 역사를 청산하는 첫걸음이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새로운 100년의 주역이 되도록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3 달뜨기 03:30
해질 18:27 달질 13:40

삼일절 100주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1/14	보성	맑음	-1/13
목포	맑음	3/11	순천	맑음	4/15
여수	맑음	5/14	영광	맑음	-1/11
나주	맑음	-2/14	진도	맑음	4/9
완도	맑음	3/14	전주	맑음	0/13
구례	맑음	-1/15	군산	맑음	-1/10
강진	맑음	1/14	남원	맑음	-2/13
해남	맑음	0/12	흑산도	맑음	5/11
장성	맑음	-2/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09 16:43
여수	12:44 --:--	06:32 18:12

◇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	☁	☀	☀	☀	☀	☀
2/15	5/11	5/11	2/14	3/12	2/13	1/13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 방지 난간 설치

광주시 남구가 제석산 구름다리에 2m 높이의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남구는 “제석산 구름다리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제석산 일대 등산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름다리에 1.2m 높이의 안전 난간이 세워져 있지만, 2017년과 지난해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 높은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남구는 오는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8월 안에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석산 등산로 11.1km 구간에 나무계단과 로프 난간, 간이체육시설과 같은 편의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등산객들이 제석산 일대에서 편안하게 운동하면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도심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해경 5월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발령

목포해경은 “1일부터 5월31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인 ‘관심’을 발령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경은 봄을 맞아 연안을 찾은 관광객이 늘면서 해상추락이나 고립 등 사고가 우려되고 3~5월 기간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관심’이 발령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갯바위 활동, 음주 낚시, 음주 물놀이 등을 주의

해야한다. 해경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눠 연안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봄철 낚시를 하기 위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과 더불어 낚시·관광객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엘로우 시티
장성군

휴
장성에서 쉬하세요.
술과 호수의 정취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